

# '잘 싸운 이재명' 수호 목소리

### 민형배 "대형 정치 자산" 지선서 이재명 공약 관철

민형배 민주당 정부부대표가 "선거 결과는 참으로 뼈아프지만 대형 정치 자산인 이재명이 남았다"며 "이재명을 지키고 용인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정부부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제80차 원내대표회의에서 이와 같이 발언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를 활용하고 그의 공약을 관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 민 정부부대표는 "지방선거는 결코 저서는 안 될 싸움이다. 지난 대선 저희의 오만과 무능에 내려진 준엄한 심판을 단단히 가슴에 새기겠다"고 약속하고 "민생 경제 살리기와 함께 정치교체 그리고 언론 검찰 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검찰 세력의 존중은 자칫 개혁을 좌초시키고 민주주의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가 검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 정부부대표는 "고 김대중 대통령처럼 이재명 상임고문은 가진 역경과 모략을 꿰뚫어 견뎌낸 이블레면 이 시대의 임동초 같은 존재"라고 지칭하고



민형배 민주당 정부부대표가 29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이재명 대선 후보를 활용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민주당 평택을 여성위원장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이재명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 자산을 잘 활용하는 것이 지방선거 승리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민 정부부대표는 "기득권

의 역류에 결코 굴하지 않겠다. 변화를 망설이다가 역류에 휩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속죄의 심정으로 주

권자 시민을 받들고 믿고 그리고 뜻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홍정윤 기자

# 인천 제2의료원 계양 유치 '일단 정지'

###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심사서 '불채택'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8일 인천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인천 제2의료원 계양구 유치 촉구 청원'을 심사했다.

인천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인천의 동북부에 위치한 계양구에 제2의료원을 유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이번 청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손민호 의원의 소개로 문화복지위

원회에 지난 18일 청부됐다.

손민호 의원은 "현재 인천의료원이 계양구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지역 내 300명 이상의 종합병원이 없어 지역 주민들이 공공·필수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제2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위원회 소속 6명의 의원들은 장시간에 걸친 논의와 심의 끝에 청원 채택 여부에 관해는 불채택 결정했다.

위원회는 별도 정리한 자료를 통해 불채택 사유로 "청원의 취지와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의 요구에는 전적

으로 동의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현재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행중인 상황에서 기초단체별로 제2의료원 유치를 위한 과열 양상이 지속된다면 자칫 용역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예정후보지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8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화두는 제2의료원이었다고 할 수 있고 그만큼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청원"이라며 "연수구·중구 등 타 기초단체에서도 유치를 강력하게 희망

하고 있는 만큼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객관적 분석과 행정성·공정성의 담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놴다.

시 소관부서 또한 "제2의료원 예정후보지의 객관적인 입지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기초단체별로 제2의료원 유치를 위한 과열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한 최적의 모형 도출을 위해 진행 중인 이번 타당성 용역을 통해 철저한 조사와 객관적 분석을 바탕으로 예정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중삼 기자

# 동두천시 지난해 결산 면밀 검토

### 시의회 결산검사 위원 위촉

동두천시의회는 28일 본회의장에서 2021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5명을 위촉했다.

5명의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제310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위원들로 대표위원인 박인범 부의장을 비롯해 재무관리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원 4명(세무사 2명, 전직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동두천시의 지난 1년간의 세입·세출 및 기금 등의 결산을 면밀히 검토해 감사의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게 된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정문영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임을 강조하며 "결산위원들의 숙련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



동두천시의회는 28일 본회의장에서 2021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5명을 위촉했다.

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였는지, 법령에 위배된 사항은 없는지 책임감을 갖고 꼼

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성태 기자

### 자치분권 맞춤 정치 모색

## "자치분권 2.0시대... 협치체계 정립 최우선"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토론회 시민 참여형 협업모델 모색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더불어민주당, 양주1) 위원이 좌장을 맡은 '자치분권시대, 속의기반 시민 참여형 협업모델을 찾다!' 토론회가 25일 양주시 옥정호수 도서관 3층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2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회 대축제'의 일환으로 이번 토론회는 자치분권시대, 속의기반 시민 참여형 협업모델 탐색 관련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연일열 서경대학교 지역협업센터장은 자치분권 1.0 시대에서 2.0 시대로 전환된 내용을 공개했다. 또한 "행정중심체제에서 시민공방 체제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덧붙였다. 이어서 자치분권 2.0 시대의 지역협력 모델 제안으로 협치문화 정착과 제도의 내실화, 협치활동 역량 강화 등 상세한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협력 모델 구축 방안으로 첫째, 공동생산 지향의 주민주권형 읍면동 주민자치 모델 설계, 둘째, 기존 시민참여 제도의 실질화 방안 모색, 셋째, 자치분권 2.0 시대의 민관정 협치체계 정립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용연 서영대학

교 교수는 2000년대에 들어서 주민 등 지역사회 정책참여자들이 지방정부의 핵심 기능에 직접 참여를 결정하는 공동 로컬 거버넌스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경향을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지역의 기득권 집단의 대표 과잉, 참여 목적을 어떻게 제어하고 완화시킬 것인지 지역협력의 실질화·내실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가 있음을 덧붙였다. 통계청의 '2021 삶의 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떨어뜨려 지역협력의 기반이 무너질 위험에 대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안순덕 양주시의회 의원은 SNS를 통한 주민 소통 경험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위원이 좌장을 맡은 자치분권시대, 속의기반 시민 참여형 협업모델을 찾다! 토론회가 25일 양주시 옥정호수 도서관 3층에서 열려 열린 토론을 보였다. (사진=경기도의회)

을 통해 협치를 위한 소통을 위해선 들을 곳이 제대로 마련돼야 하며 소통 플랫폼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홍성우 대진대학교

교수는 주민자치, 민관협력, 주민 참여를 통해 협치를 위한 소통을 위해선 들을 곳이 제대로 마련돼야 하며 소통 플랫폼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 주도적인 방식은 시민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다양한 주민자치의 모습을 제한하는 한계가 있

다고 덧붙였다.

네 번째 토론자인 최승하 옥정회천 발전연대 회장은 협치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시민협치를 위한 제안으로 첫째, 협치친화적 위한 프로그램의 단순화, 둘째, 협치 홍보 및 정보공개 강화, 셋째, 속의기반의 시민 참여를 위한 활성화 필요를 제시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강민지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팀장은 지역협력 활성화에 협치에 대한 현재 수준 진단과 시장의 모든 방식이 협치의 방식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적·문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박태희 의원은 "시민참여형 모델발굴을 위해 신뢰는 더욱 높이고 불신은 조금씩 좁혀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김인창 기자

### 의회 단신

##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안 발의

### 업교섭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업교섭(민주당, 용인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야간 보육이 필요한 한부모가정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센터의 기능, 대상, 지도·감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업 의원은 "우리 사회의 돌봄공백문제는 여성의 경력단절, 저출산 심화 등 부작용을 만들어 오며 출산·보육에 대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강조돼 왔다"

면서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초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끝으로 업 의원은 "실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논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24시간 아이돌봄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센터 운영 등 이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도차원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및 체계가 마련돼 돌봄공백문제의 해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시 시·군의 지역상황 및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설치된 어린이집 또는 아이돌봄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 상임위에서 수정가결 됐으며 31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다.

김인창 기자

## 하남시 대중교통 지원사업 예산 확보

### 추민규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민주당, 하남2) 의원은 경기도 버스정책과 소관의 하남시 지원사업 4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예산 확보로 버스 차고지 시설 개선사업과 버스 정류소 개선사업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등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편리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 의원은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지원과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국비지원 사업에도 도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기도 집행부에 하남시 예산을 위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등 최다 도정 질의 의원이라는 타이틀과 최다 토론회 개최 의원 및 최다 예산 확보 의원으로도 평가를 받은 셈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민주당, 하남2) 의원은 경기도 버스정책과 소관의 하남시 지원사업 4억3000만원을 확보했다.

추 의원은 "국비 부분은 최종중 국회 의원께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기도 예산 부분이라도 더 챙기고자 노력한 것이 결실로 나타났고, 교육 및 건설·교통 분야의 예산 확보에도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창 기자

## 인천 계양구 추경안 통과되나

### 계양구의회 임시회 개최

인천 계양구의회가 28일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개최를 시작으로 5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인천시 계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규칙안 8건, 동의안 1건, 기타 2건으로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 6175억원보다 525억원(8.51%)

증액한 6700억원 규모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마지막 날인 4월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김유순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구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상정돼 있으므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예산을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송홍일 기자